개구장이 대소동
R. 리슨 작/김동일 역

민서출판사/A5변형/198면/2000원

『도로? 우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에는 벌떡 일어섰다. 플레디의 이름을 큰 소리로 마구 불러댔다. 아, 그리운 이름, 플레디!
우리들은 플레디의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하여 뛰기 시작했다. 두꺼운 장막같은 덤불을 헤치고, 도랑을 두군데나 뛰어넘고, 생울타리 밑을 기어나갔다. 아! 있었다. 거기 번듯한 도로 옆에 앉아있는 플레디가 보였다. 도로와 플레디, 둘 다 눈물겹도록 반가웠다.
「이게 무슨 도로지?」
헤럴드가 멋적게 물었다.
「밀베리도로지 뭐야?』

동그라미
허병렬 작

융성출판/B5/160면/5000원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가
개구장이들을 부르는
바닷가는 좋은 곳
우리들 세상.
물속에서 헤엄치다
싫증이 나면
두꺼비집 지으며 노는
바닷가는 좋은 곳
우리들 세상.
모래장난 한참 하다
싫증이 나면
조개껍질 주으며 노는
바닷가는 좋은 곳
우리들 세상』
(「바닷가는 좋은 곳」에서

달마
정용득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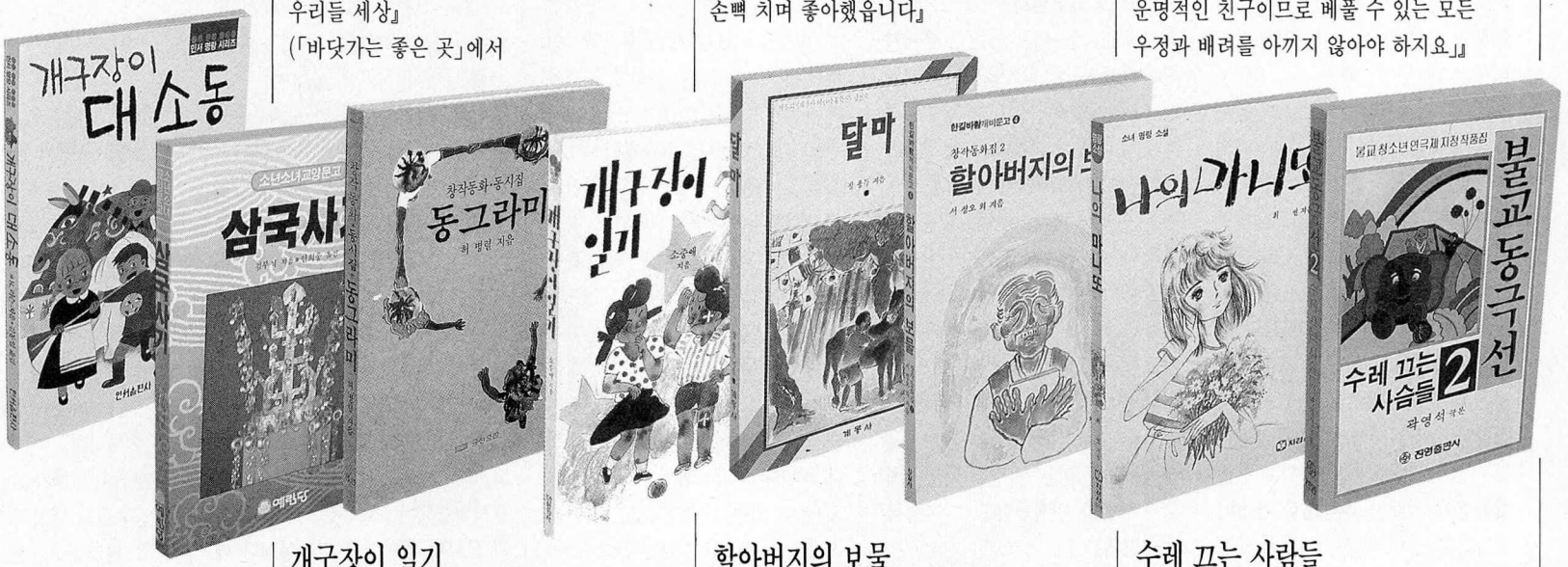
계몽사/A5변형/242면/1500원

『잔칫날 마을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가장 인기를 얻은 것은 역시 달마였읍니다. 사모관대와 검정 가죽신까지 신은 신랑을 등에 태우고 색시 집까지 무사히 데려다주었기 때문이지요.
어여쁜 산골 색시는 병풍 앞에서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바른 볼에 행복한 웃음을 띠었읍니다.
색시의 호랑이같은 할아버지도 신랑신부의 절을 받고 아주 흡족해하셨읍니다. 색시의 부모와 친척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모두 손뼉 치며 좋아했읍니다.
이런 일은 맹진사댁 잔치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읍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모두 손뼉 치며 좋아했읍니다』

나의 마니또
최연 작

지경사/A5변형/184면/1800원

『「같은 반 친구끼리 서로 미워한다는건 몹시 우울한 일이잖아요. 교장 선생님,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마야 선생님은…고개를 끄떡이더니 미수의 손을 잡고 식물원 앞 벤치로 갔다. 「이렇게 해 보는 거여요.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마니또 게임'이라는 건데,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으니까. 남학생에겐 여학생이 또 여학생에겐 남학생이 서로의 마니또가 되는 거지요. 이 게임의 재미있는 특징은 내가 누군가의 마니또가 되었는지 누가 나의 마니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게임을 하는 동안 마니또는 나의 운명적인 친구이므로 베풀 수 있는 모든 우정과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하지요」』



삼국사기
김부식 작/안희웅 역

예림당/A5변형/224면/2000원

『86년(서기 138년) 3월에 태조대왕의 동생 수성이 질양에서 사냥을 하며 7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않고 놀기만 하였다. 7월에는 또 기구라는 곳에서 사냥을 하며 5일만에 돌아왔다. 그러자 동생 백고는, 「화와 복은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따로 없읍니다. 오직 사람이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형님은 왕의 친아우로서 모든 신하의 으뜸이 되고 지위와 공이 이미 가장 높습니다. 마땅히 충성과 의리를 지켜야 하며 예의와 양보로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위로는 왕의 덕을 베풀고 아래로는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만 오래도록 부귀를 누릴 수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형님께서는 이런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저 놀기만 하면서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니, 형님을 위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개구장이 일기
소중애 작

현암사/A5변형/192면/2300원

『그 다음날, 선생님은 학교에 나오시지 않았읍니다. 안경 쓰고 몸이 마른 교감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르쳐주셨읍니다.
「너희들 때문에 선생님은 병이 나셨어」
교감선생님이 말씀하셨읍니다. 우리는 교감선생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끽소리도 못하고 엊그제 안맞은 예방주사를 맞았읍니다.
선생님도 예방주사를 맞으셨으면 병에 안걸리셨을텐데 …… 불쌍한 선생님.
선생님이 안계시니까 우리들은 공연스레 풀이 죽었읍니다. 노래를 불러도 재미없고 교감선생님이 옛날이야기를 해주셨는데도 시들했읍니다』
(「예방주사 소동」에서

할아버지의 보물
서정오 外 작

한길사/A5변형/196면/2200원

『집이 헐리면 어떻게 하나? 그보다 고모할머님댁과 이모님댁에서 빌어쓴 돈은 어떻게 갚는 걸까?
다음날, 진구는 학교에 가지않기로 했다.
「엄마, 나 오늘 학교 안갈테야」
진구가 그러니까 진수도 따라 머뭇거렸다. 진숙이는 덩달아 눈이 둥그래져 식구들을 쳐다봤다.
「괜찮으니까 학교 가거라. 너희들이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거냐」
아버지가 조용히 타일렀다.
「하지만 전에 어머니의 포장마차처럼 부숴버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 반 세민이네도 무허가건물이라 해서 집이 헐렸다던데 ……」
「그래, 그러니까 더군다나 어쩔 수 없잖겠니?」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수레 끄는 사람들
곽영석 극본

진영출판사/A5변형/350면/3500원

『샛별 : 여보! 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바보 : 응? 무슨 말인데?
샛별 : 비단 말이에요. 짜드리겠어요.
바보 : 정말이야? 정말 짜주는 거야?
샛별 : 예. 짜드릴테니 서울에 다녀오세요.
바보 : 서울? 나 혼자 서울에 다녀와도 좋아?
샛별 : 예. 그대신 당신이 좋아하시는 돈을 많이 가지고 돌아오셔야 해요.
바보 : 그야 물론이지.
샛별 : 그리고 ……
바보 : 응? 뭐?
샛별 : 제가 비단을 짜고있는 것을 절대로 들여다보지 마셔요.
바보 : 알았어. 내가 언제 각시가 비단 짜는거 보기나 했나?
샛별 : 좋아요. 그것만은…여보, 만약에 제가 비단을 짜고있는 것을 들여다보면 그것으로 우리들 사이는 마지막이에요』

꼬마선장의 모험
폴 비겔 작/이기남 역

현암사/A5변형/190면/2300원

『만일 그때 토마스가 자기 뒤를
돌아보았다면 으악! 하고 난파선에
뛰어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뒤를
돌아다보지않고 서있었읍니다.
갑자기 털투성이의 팔이 토마스를
붙들었읍니다. 토마스는 공포의 비명을
질렀읍니다. 단 한번의 비명이었읍니다.
왜냐하면 공중으로 들어올려진 토마스는
그대로 어디론가 붙들려 가버렸으므로
소리도 더이상 지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를 낚아챈 자는 나는 것처럼
산꼭대기를 향해 쿵쿵 걸어갔읍니다.
그러고는 산 저쪽에 토마스를
내려놓았읍니다.
「살려줘요!』』

그리스·로마 신화 1·2
권태선 편역

창작사/B6/각권 260면 내외/각권 1500원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영웅은
헤라클레스입니다. 그는 아테네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그리스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영웅이었읍니다. 테세우스가 용감할
뿐만 아니라 다정다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반면에 헤라클레스는 힘이 세고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읍니다.
그는 지혜와는 거리가 멀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도대체 지혜라곤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했읍니다. 언젠가 몹시 무더운
여름, 더위를 못 참은 헤라클레스는
태양에게 이렇게 자꾸 무덥게 만들면 화살을
쏘아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했읍니다.

꽁지머리 줄리에뜨 1·2
엘렌느 레이 작/김용숙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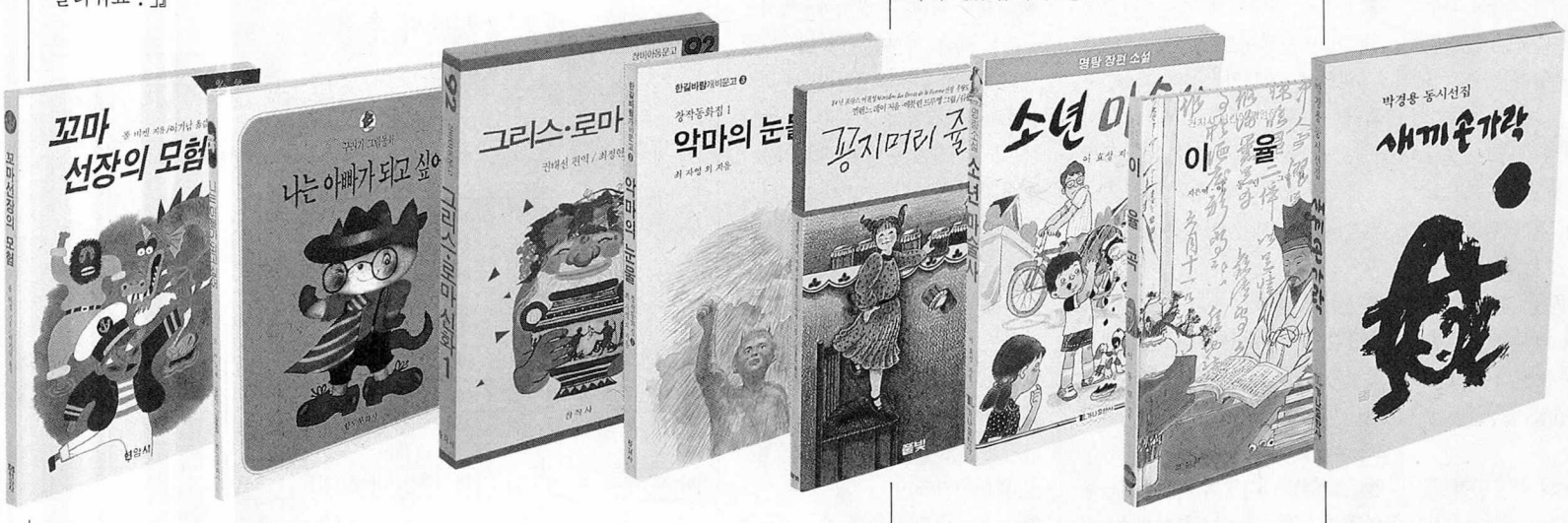
풀빛/A5변형/각권 184면/각권 2000원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께 제가 시를 하나
지었다고 말씀드렸읍니다. 「좋아, 줄리에뜨.
어디 한번 들어보자」 선생님께서는 손뼉을
치면서 말씀하셨읍니다. 모두 둥글게
앉아서 줄리에뜨의 시를 들어봅시다」 저는
선생님 가까이에 뒷짐을 지고 서서 시를
읊었읍니다.
내 이름은 줄리에뜨
머리엔 작은 꽁지 둘
나는 아주 멋져요.
모두가 웃어댔읍니다. 나는 크리스띠앙 옆에
가서 앉았읍니다. 그 애도 역시
멍텅구리에요. 내 머리 꽁지를 잡아당기면서
「아! 작은 꽁지머리, 올빼미 같애 라고
하지 않겠읍니까?』

이율곡
이동열 작

견지사/A5신 변형/96면/1500원

『율곡 이이 선생은 중종 31년인 1536년 12월
26일, 강릉에 있는 그의 외가에서
태어났읍니다. 그 때 아버지 이원수는 서른
여섯 살이었고, 어머니 신사임당은 서른
세살이었읍니다. 어머니 사임당은, 율곡을
낳기 전 어느 날 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읍니다. 하루 일을 끝내고 피곤한
몸으로 자리에 누운 사임당은 이내 곤한
잠에 빠졌읍니다. 한창 잠을 자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읍니다. 난데없이 검은 비늘에
금빛 테를 두른 큰용 한마리가 동해
바다로부터 불쑥 솟아올라오더니 하늘을
날아 곧바로 사임당이 자고 있는 방의
문지방에 와서 사임당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숙였읍니다』



나는 아빠가 되고싶어
이상배 작

한도문화사/A5신변형/34면/3000원

『「아빠 나도 아빠가 되고싶어요」
「왜, 아빠가 되고싶지?」
「아빠가 되면 늦잠을 자도 되고, 신문도 볼
수 있고, 맥주도 마실 수 있구요. 그리고, 또
뽐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좋아. 오늘은 아빠가 좀
쉬고싶으니까, 아빠와 바꾸어서 해볼까?」
「와아, 정말! 그럼 나는 오늘 아빠가
된거지!」
「그래, 아빠는 오늘 꾸러기가 되는거다」
「나는 지금부터 아빠다. 우선 모자를 쓰고,
넥타이를 매고, 그리고 안경을 척 쓰고나서
이번에는 번쩍번쩍 구두를 신어야지」
「엄마. 오늘은 내가 아빠예요.」
「어머, 어머! 꾸러기가 아주 근사한
꼬마신사가 되었구나」
「흠, 오늘 신문을 좀 볼까. 무슨 기사가
났는지?」
「난, 그림동화책을 봐야지」

악마의 눈물
최자영 外 작

한길사/A5변형/210면/2200원

『그날 밤 아기별은 훨씬 그 빛이
흐려졌읍니다. 자유가 없는 별이 더 반짝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늘의 엄마별도 흐려졌읍니다. 그리고 많은
별들이 하늘을 떠났읍니다. 아기별을 잡아
묶어두고 돈이나 벌려는 사람들에게
정나미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밤하늘은 점점 쓸쓸해졌읍니다. 밤은 점점
어두워졌읍니다. 별들이 사라진만큼 세상
사람들은 점점 희망을 잃게 되었읍니다.
길거리에는 술을 마시고 웩웩거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읍니다. 절망때문에
미쳐버린 사람들도 생겼읍니다. 환한 햇빛이
누리를 비출 때에도 사람들 마음 속에서
빛나는 꿈을 찾아볼 수 없었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라지는 별들 때문에 절망 속에
빠져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읍니다』

소년 마술사
이효성 작

가나출판사/A5변형/224면/2000원

『버스에서 내린 하마는 꾀남이에게 등을
내밀었다. 업히라는 거였다. 꾀남이는
사양을 하였다.
「에이, 그냥 가」
「업어주고싶어서 그래. 가위 바위 보 해서
져서가 아니야」
「왜 업어주고싶어?」
「그냥……」
「내가 좋아서?」
「응!」
「나도 형이 좋아」
꾀남이는 하마의 등에 업혔다. 하마는
두손을 쫙 펴서 꾀남이의 엉덩이를 받쳤다.
「형의 두손이 보자기가 된 거 알아?」
「그렇구나!」
「보자기로 나를 싸 안아줘서 고마와」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되겠어」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돼」』

새끼손가락
박경동 작

가나출판사/A5변형/262면/3500원

『얼음 든 내 새끼손가락에
바알간 새살 돋자, 때를 맞추어

땅에, 나무에, 꽃나무에
새끼손가락 끝 새살같은
어린 것이 돋아났다.
파릇하니 연한 새끼손가락.

어디를 가든지 눈에 띄는 건
그 새끼손가락 새살이다.
눈을 떠도 감아도
세상이 온통 새끼손가락이다.
돋보기 너머로 이윽히 바라보시다가
-고것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할아버지의 나는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에서